

대구 주보

사순 제3주일 2017. 3. 19.(가해) 제2043호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uju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요한 4,14) 삶에 지치고 방향하는 우리를 촉촉이 적서 주는 생명의 샘이신 주님을 만납시다.

— 정미연 소화데레사 作

제1독서 탈출 17,3-7

제2독서 로마 5,1-2,5-8

복음 요한 4,5-42

화답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샘이 솟아나리라.

모세의 지팡이와 예수님의 말씀

한창현 요셉 신부 | 성건본당 주임



대구교구의 형제자매님들! 경주에 자주 오셨는지요? 이곳 경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디일까요?

여행객들을 조사했을 때, 사람들은 ‘동궁과 월지’가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안압지’라고 부르던 곳인데, 이곳의 야경은 아름답고, 연못 위에 떠 있는 듯한 옛 건물 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이 물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물과 함께 있는 문화재가 떠올랐습니다. 1독서에서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물을 달라고?’ 백성의 원망을 들은 하느님은 모세로 하여금 바위를 쳐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합니다. 그곳 이름도 ‘마싸’와 ‘트리바’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모세가 든 ‘지팡이’, 그리고 내리친 ‘바위’, 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막에서의 바위처럼 나를 딱딱하게 하는, 나의 마음을 차갑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여는 지팡이는 무엇인가?’ 이 사순 시기에 그것,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판공성사입니다.

한편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길으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어떻게 했나요? 바가지에 나뭇잎 하나를 띄워 주었나요? 달라는 물은 안 주고,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사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과 그것도 여인과 대낮에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궁시령 궁시령 댈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정오 열두 시쯤 힘이 든 상태에서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힘들면 물을 마시고 좀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이틀을 머무르며 지친 몸을 회복합니다. 어떻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도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친 몸을 회복합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선물,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 것입니다.

일상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은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영원한 생명의 물을 그리워하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유일무이한 존재들과 함께

이영동 치릴로 신부 | 산자연합교장

대안학교에서 생활한 지 4년째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직 잘 안되지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말인가?’ 잘못된 것은 바꿔 줘야지.’ ‘공부를 못하면 잘하게 해야 하고, 나쁜 습관이 든 사람은 고쳐 줘야지.’ ‘교육을 포기하라는 말인가?’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 주지 않고 고쳐 주려고 덤빌수록 사태만 악화되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나 선생님들에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은 나와 있었지만 잘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면 되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유일무이한 자기만의 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절대적인 교육이란 없다. 그저 한 아이의 인성에 맞는 교육만 있을 뿐이다. 모든 아이는 자기만의 존재방식을 지닌 유일한 존재이다. 따라서 그 누구와도 비교 불가능하다. 아이들은 다 제각각이다. 모든 아이는 하느님의 유일한 형상이다. 부모는 아이의 유일성과 특별함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신의 형상이 아이를 통해 어떻게 발현되는지 말로는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아이에게 내재하는 하느님의 형상을 믿는다면, 그 아이만이 지닌 특별함과 개성에 대해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자기만의 유일무이한 경험으로 가득 찬 풍요의 상징이다. 모든 아이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다.”(『아이들이 신에 대해 묻다』 중에서)

교육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유일무이한 존재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안학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을 누리려는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교생이 51명 됩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정월 대보름에는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멀리서 가까워서 사연 하나쯤은 가슴에 안고 찾아왔습니다. 먼저 선후배가 인사를 나누고, 동네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리고 덕담도 들었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들과 윷놀이를 한판 벌였습니다. 윷가락이 던져질 때마다 어깨춤이 절로 났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연이 하늘을 날았고 제기차기와 떡메치기로 신이 났습니다. 학교를 방문한 부모님과 형제자매들도 신이 났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달집태우기를 하면서 동네 어르신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서 풍물 가락에 맞추어 한바탕 놀았습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해서 풍요로웠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연기와 불꽃을 보며 빌었습니다. 올해도 유일무이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해지기를... **필로**



“죽어서도 성교(聖敎)를 믿겠소”

영남 신앙의 교두보, 대구 첫 본당 터 **신나무골**



대구에서 서북방향 20km, 4번 국도를 타고 신동을 지나 왜관으로 가다보면 ‘신나무골 성지’라는 큰 표지석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국에서 충청도 배론과 함께 가장 유서가 깊은 박해 시대 교우촌으로, 신자들이 나무 아래 움막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신나무골’. 영남 지방 선교의 요람지인 신나무골은 1815년 을해박해 때부터 신자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외지고 깊숙한 산골이면서도 대구를 지척에 두어 많은 선교사들이 대구 진출의 전초 기지로 삼았던 신나무골은 샤스탕, 다블뤼, 최양업, 리텔 신부 등이 사목 활동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1866년 병인박해로 신나무골의 신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박해가 잦아들면서 다시 모여 들었고 새로 입교한 이들과 함께 신자촌을 이루었습니다.

1885년 12월에는 경상도 선교 담당으로 로베르(김보록) 신부가 부임하여 이곳 신나무골에 사제관을 지어 정착하였는데 바로 주교좌 계산성당의 시작이자 대구의 첫 본당 설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3년 후 로베르 신부가 대구 새방골로 옮겨 가고 그 뒤를 이어 모두네 신부와 조조 신부가 얼마간 머물며 사목하다가 각각 전주와 부산에 본당을 설립해 나갔습니다. 1895년에는 빠이아스 신부가 거처를 신나무골에서 가실로 옮겨 본당을 설립했는데 그때부터 신나무골은 가실본당의 공소가 됐으며 1928년 왜관본당이 설립되자 왜관본당 관할 공소가 되었고 1968년 2월 신동본당이 설립돼 관할 교우촌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연화서당’이라고 불리는 신나무골 학당이 있었는데 서울 약현성당(명동성당)의 ‘한한학교’와 함께 천주교 내에서 가장 일찍 신학문을 가르친 신식학교였습니다. 1883년에 세워진 이 학당은 1920년 신동초등학교가 세워지기 전까지 인근 마을 아이들에게 신학문과 구학문, 천주교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1860년 경신박해 때 순교한 이선이 엘리사벳의 유해가 묻혀 있습니다. 칠곡읍에 살던 이선이 가정은 박해를 피해 신나무골에 피난했지만 이곳에도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다시 한티로 피신하였습니다. 결국 포졸들에게 붙잡힌 이선이와 장남 배 스테파노는 “죽어도 성교를 믿겠소.”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작두날에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칠곡 안양동(현재 대구 북구 읍내동 산 21번)에 모셔져 있던 이선이의 유해는 1984년 한국 천주교 선교 200주년을 맞아 왜관 성 베네딕도 수도회의 주선으로 이곳 신나무골로 이장 안장되었습니다.



대구대교구는 1977년 제1차 신나무골 성역화사업을 완수하고 이곳에 ‘대구 천주교 요람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984년에는 대구 본당의 첫 본당터를 복원하고 마당에 로베르 신부 흉상도 건립했습니다. 지난해 2016년 9월 10일 칠곡군에서는 가실성당에서 이곳 신나무골을 거쳐 한티 성지에 이르는 45.6km의 ‘한티 가는 길’이 개통되어 많은 순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세 가지 직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인류구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8-20)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교회의 선교 사명으로 세 가지 직무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바로 ‘예언직과 사제직, 왕직’을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되고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과 성전에 의하여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직무를 가지는데 “**세상 모든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라는 주님의 말씀은 교회의 ‘예언직’을 말합니다. 복음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에 따라 생활하고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통해 선교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사제로서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모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사제직에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교회의 ‘사제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계승한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은 식탁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며 죄를 용서하고 하느님의 백성을 거룩함으로 인도합니다. 즉 교회는 성사집전과 전례행위를 통하여 사제직을 수행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사 성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의 왕국은 이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 참행복이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주권을 확립하고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해야하는 직무를 가지는데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교회의 ‘왕직’을 말합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요한 13,14-15)라고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 특히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 가장 보잘 것 없는 형제자매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언하는 선교 활동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언직, 사제직, 왕직을 올바로 수행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평신도로서 이 세 가지 직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평신도 사도직’이라 부르는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많은 사도직 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구장 동정



3. 13(월) ~ 3.14(화) _ 주교 영성 모임
(안동교구)

보좌주교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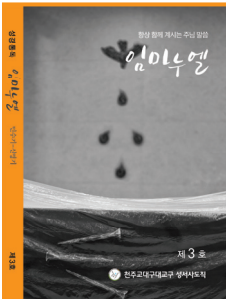
3. 13(월) ~ 3.14(화) _ 주교 영성 모임
(안동교구)
3. 18(토) _ 평양교구 90주년 행사 참석
(11시, 명동성당)

교구 및 기관 행사

- 3. 22(수) _ 시니어 평생대학 봉사자 성경교육(13시,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 3. 23(목) _ 35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4주차(9시 30분, 성김대건성당)
- 3. 25(토) _ 가나피정(26일까지, 연화리 피정의집)
1박 2일 청년피정(26일까지, 베네딕도영성관)

유사 종교(사이비) 피해 사례 제보 받습니다!

유사 종교(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유사 종교 피해 사례를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보전화: 교구 소람상담소, 053)250-3100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 말씀 임마누엘

언제, 어디서든 성경말씀을 통독할 수 있는 월간 “임마누엘”이 출간되었습니다.

판매가: 2,000원 /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053)250-3082

대구지역 판매처: 계산서원, 삼덕성당 임마콜라따 성물방, 남산성당 바티카노

판매처: 전국 바오로딸서원, 전국 성바오로서원

답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남 탓을 하지 않고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3월 20일(월) 10:30 범여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3월 21일(화) 19:30 다사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3월 20일(월) 11:00 죽도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3월 22일(수) 10:00 평화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3월 20일(월) 11:00 피정의집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3월 22일(수) 10:00 죽도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3월 21일(화) 14:00 신암성당	김천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3월 22일(수) 19:00 성의여고경당

대리구 소식

2대리구 성경학교 개강

개강: 3.30(목) 10:00 매주 목
장소: 2대리구청 1층 강의실
강사: 성바오로팔수도회
문의: 743-7010

성소 | 피정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3.25(토) 16:00
장소: 예수회센터 이냐시오 카페
주제: 이냐시오식 관상기도
문의: 이인제 수사, (010)2874-9203

대구 다락방 성소 모임

일시: 매월 첫째주 일 11:00~18:00
장소: 텃밭포교베네딕도 대구수녀원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010)8519-3431

4월 한티 피정

순교 영성(칠곡): 4.1(토)~2(일)
예수마음기도(침묵): 4.3(월) 10:00~17:00
순교영성(사랑의 테): 4.6(목) 10:00~16:00
쉬는하루(산책 기도): 4.17(월) 10:00~16:00
문의: 한티피정의집, (054)975-5151

아씨시수녀들과 수도생활체험 피정

기간: 3.25(토)~26(일), 부산 분원
대상: 미혼 여성(1박 2일) / 회비: 2만원
주최: 아씨시의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문의: 전베로니카 수녀, (010)5313-0241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기간: 3.26~29 / 4.1~3 / 4.6~8
4.17~19 / 4.20~22 / 4.25~28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교육 | 모집 | 기타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순환교육(17_1차)

일시: 4.8(토) 13:3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관 3층 데레사홀 / 문의: 650-4910
주제: 류마티스관절염의 최신 치료
강사: 류마티스내과 최정윤 교수

대가대 차이나포럼 제25기 원우 모집

개강: 3.20(월) 19:00(현재 접수중)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석식,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0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일시: 매주 금 10:00~11:15
장소: 계산성당 제1교리실
강사: 3월_서보효(라이문도) 신부
4월_천지만(베드로) 신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관덕정 국내 성지순례

일자: 4.30(일)
장소: 대전교구 진산성지
신청: 3.22(수)부터 선착순
회비: 3만원(중식 포함)
문의: 관덕정, 254-0151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 어르신 모집

내집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곳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2

고령성가의집(무료양로원) 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고령 쌍림면
내용: 매일미사와 공동기도, 1인 1실 사용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일상생활이 가능한 어르신)
문의: (054)954-1824 / (010)2362-7044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신홍식(루가)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그랜드 통증의학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프롤로 재생 주사,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 · 원장 정순우 (요셉)
범여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여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여역 6번 출구)

가톨릭 임마누엘

결혼정보 43년 전통

명동성당 정문 앞 한국 YWCA 504호

☎ 02)757-3343 이수산나

유러피안 스타일 캐주얼 레스토랑

moumious 무무스

스테이크(한우)·파스타·화덕피자·샐러드바

대구시 수성구 용학로 13(수성못)

예약문의 762 7555 | 김경희(스태파니아)

Legend of Royal

Rex Diamond
더렉스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 · 감사선물 · 프로포즈 반지)

대표 임 미 순(마리아)

♥ 교통족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동아주차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양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대구, 경북 어디서나 포장이사 전문

2484익스프레스

한익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 구 313-2484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훈(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행사 | 모임

바오로딸 공예초 전시회

기간: 3.7(화)~4.4(화), 동성로 바오로딸
주제: 부활의 빛과 평화
작가: 이해원(안나), 이경순(아타나시아)
수녀, 최명애(크리스티나) 수녀
문의: 바오로딸서원, 425-5185

가톨릭 미용인회 빛모임

일시: 3.27(월) 20:00
장소: 교구청 가정담당(대건관 2층)
대상: 가톨릭신자 미용인 모든 분
문의: (010)6560-3086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3.20(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교육 | 모집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제15차 영남지역CPE 봄 세미나

일시: 4.1(토) 9:30~16:00 / 3만원
장소: 대신학원 대강당 / 마감: 3.30(목)
주제: 로고테라피와 영적돌봄
주최: 대구대교구·성바오로CPE센터
문의: 659-3410 / (010)4143-5508

54차 선교대학 개강 (선교의 왕도_감동)

일시: 3.25(토) 10:30~16:30

장소: 계산문화관 / 지도: 이판석 신부
신청비 무료, 중식 제공
주관: (사)가두선교단, 781-6100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60세 이하)을 찾습니다.
연습: 첫째, 둘째, 넷째주 토 18:00 셋
째주 일 17:00 / 장소: 계산문화관 5층
문의: (010)3817-1963 / (010)9095-0570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월) 우쿨렐레, 성인생활영어회화,
(화) 바이올린, (목) 성가반주법
문의: 476-6211(지하철 1호선 교대역)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난타교전무용·장구오카리나, 가곡성가, 성
가반주_오르간·클래식기타·하모니카, 발성
법, 수지침, 왕초보관광영어, 소설창작, 꽃꽂
이_제대사범자격반, 미술심리상담사2급, 동
화구연2급, 원어민영어 / 신청: 254-6115

새빛학교 성인 기초영어반 모집

수업: 매주 화, 목 13:00(주 2회)
문의: 새빛학교, 476-3100(교대역)

미혼모자시설 가톨릭푸름터

미혼의 임신부·출산 6개월 미만의
도움이 필요한 여성(무료 시설)
주거·의료, 출산, 직업훈련교육 등
전화, 인터넷, 내방상담 가능(항공동)
문의: 764-8537 / www.ggum1004.com

채용 | 안내

교구청 사무직 여직원 채용

자격: 30세 이하 대졸, 회계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마감: 3.30(목)
서류: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성적·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제출: 교구청 관리과(방문), 250-3030

교구 법원 공시(253-9550)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지현(아가다), 박영오(요안나)

부활위문품 신청

군중후원회에서 부활을 맞아 사병들에
게 위문품을 발송합니다. 신청바랍니다.
마감: 3.26(일) ※꼭 지켜주세요.
접수: 본당, 단체 사무실
대상: 신자자녀 현역사병
(훈련병·교육병·부사관·장교 제외)

낙산묘원 묘주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문의: 비산성당, 564-1004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7년 대상자 /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www.hyhop.com

우리 아이 아플때?
안영한마음아동병원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필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삼성 인테리어 필름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필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삼성 인테리어 필름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고객 맞춤형 장례비용 설계
장례대행 / 장지분양 / 묘지이자 / 묘지조성

가톨릭 상조

월불입금 없는 후불제

24시간 상담문의 : 1577-3182
부성 서경철(라파엘) 010-7799-7836

WIDEX
와이덱스 보청기

달서점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131만원 보조금 전문상담
류(다니엘)/청농사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보건복지부 인증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말기암 통증 및 증상 조절

재능 및 기타봉사자 상시 모집

사랑나무의원 원장 전 수(가브리엘)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112-1 (동구시장 맞은편)
24시간 상담 · 입원 (053)217-9500

다비드 제통 외과

비수술적 척추, 관절, 신경, 인대 치료 전문
물리치료에 잘 낫지 않는 난치성 통증 전문
원장 권영득 (다윗)

Tel : 053)351-1704

칠곡 동아백화점 사거리
지하철 3호선 칠곡문암역에서 도보 10분

성모지압안마센터

지압, 교정, 안마
어깨결림, 목, 허리, 골반교정
수험생, 직장인, 주부 환영

TEL, 053.631.2020
HP, 010.2814.5566

달서구 도원동 564 3층 (엘리베이터 有)

온수매트 전기매트

게르마늄 찜질기
소금좌욕기 전자제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T.053)604-3300

전자관 1층 239호(대구 북구 유동단지 45)